

#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 및 의천의 시대정신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f the Researches & Commentaries on  
Cheontae · Beophwa Included in *Gyojang chongnok*  
and Uicheon's Spirit of the Times

김 성 수 (Kim, Sung-Soo)\*\*

## ◁ 목 차 ▷

1. 서 론	3. 의천의 시대정신
2.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法華· 天台 章疏	4. 결 론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의 특징과, 의천이 諸宗教藏(屬藏經)을 수집·정리하여 간행하게 한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導出한 논문이다. 본문에서 논술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총록』에 수록된 천태·법화의 章疏들은, 天台3大部를 비롯한 천태종의 소의 경전과 관련된 모든 장소들을 포괄적으로 結集함으로써, 고려에 天台宗을 開創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교장총록』의 목록기입법은 현대목록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 著錄의 탁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셋째, 의천이 제종교장을 결집·간행하게 한 시대정신을 고찰하여 본 결과,

- ① 正藏(大藏經)의 三藏에 연속·계승할 수 있는 이른바 ‘第四藏’을 간행하기 위하여 동양 전체의 章疏를 결집하였음을 파악하였다.
- ② 의천이, 1085~1086년의 2년 동안 중국을 周遊하면서 名僧들과 교류하고 章疏들을 수집한 당시의 시대정신은, ‘고려에 천태종을 개창하겠다!’는 염원이 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③ 1091년 이후 의천의 시대정신은 ‘章疏에 입각한 佛法의 弘布로 末法時代의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念願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要語: 의천(義天), 시대정신, 『교장총록(教藏總錄: 신편제종교장총록)』, 천태(天台), 법화(法華), 장소(章疏)

\* 이 연구는 <2014년, 제3차년도 ‘高麗 諸宗教藏 調査’ 학술보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한국서지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5년 5월 23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es & commentaries(章疏) on Cheontae · Beophwa included in *Gyojang chongnok* and the spirit of the times which had motivated Uicheon to collect, organize and publish *Jejong Gyojang* (*Sokjanggyong*) in Goryeo Perio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s & commentaries on Cheontae · Beophwa included in *Gyojang chongnok* comprehensively covered all the commentaries related to the basic scriptures, including Trilogy of Cheontae, of Cheontaejong and then form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aunching Cheontaejong in Goryeo.

Second,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Gyojang chongnok* demonstrates the excellence of its entries.

Third, an analysis of the spirit of the times which motivated Uicheon to collect and publish *Jejong Gyojang* confirms that

- ① Uicheon collected all researches & commentaries in the Oriental countries in order to publish what is called 'the fourth Buddhist scripture' which could follow and succeed to the three main Buddhist scriptures of *Tripitaka*,
- ② Uicheon, traveling China for two years from 1085 to 1086, associating with famous Buddhist monks, and collecting all researches & commentaries, had a very strong will to found Cheongtaejong in Goryeo,
- ③ Since 1091, Uicheon's spirit of the times still kept his long-cherished wish to save mankind living in the chaotic period by reestablishing and offering Buddhist canons based on the researches & commentaries.

Key words: Uicheon(義天), the spirit of the times, *Gyojang chongnok*(教藏總錄), Cheongtae(天台), Beophwa(法華), researches & commentaries(章疏)

## 1. 서론

大覺國師<sup>1)</sup> 義天의 생애를 크게 두 영역으로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천은 文宗<sup>2)</sup>의 넷째 왕자로 출생(1055.9.28.)하여, 그의 조부였던 顯宗이 主導·板刻한 鎮兵大藏經(初雕大藏經)<sup>3)</sup>을 보면서 성장하였으며, 11세 때 自進하여 出家(1065.5.14.)하였다. 문종이 진병대장경의 후반부를 완성하여 가는 단계인 1073년(文宗 27)에, 의천은 ‘正藏인 大藏經을 보완하고 이어갈(補續) 수 있는 續藏인 諸宗教藏, 즉 대장경에 관한 동양 學問僧들의 研究書인 章疏에 대하여, 고려를 비롯한 중국(宋)과 遼나라 等地에 산재하는 모든 章疏들을 수집하여 一藏(諸宗教藏)으로 완성하여 유통시키겠다!’는 크나큰 誓願을 일으켜 “代世子集教藏發願疏”를 쓰게 된다. 이 때 의천의 나이 19세였다. 宣宗(1084-1093) 시대에 들어와, 1085년 4월에 의천은 선종께 “請入大宋求法表”를 올렸으며, 4월 초과일에 드디어 고려를 출발하여<sup>4)</sup> 5월 2일에 송나라 密州에 당도하였다.<sup>5)</sup>

- 1) 의천(1055-1101): ‘大覺’이라는 시호(諡號)가 말해 주듯이, 의천은 ‘석가모니의 後身’이라 불릴 정도로 불교 教學에 관한 그의 업적은 진실로 위대하다 할 수 있다.
- 2) 문종(1042-1080): 현종(顯宗)의 셋째 아들. 형인 제10대 왕 靖宗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형제상속의 형태를 취하여 1046년(경종 12) 王位를 계승하였다. 문종 재위 37년 동안, 고려의 문물제도도 크게 정비됨으로써, 흔히 이 時期를 ‘高麗의 黃金期’라고 한다.
- 3) 1010년에 거란(契丹)이 고려를 침략하자, 고려의 顯宗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歸京하면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1011년(顯宗 2) 2월 15일에 <淸州 行宮>에서 ‘대장경의 彫造(刻板)를 하늘에 맹서·발원하자, 거란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갔다’고 한다. 이에 현종은 재임 당시 20여 년간에 걸쳐 대장경의 판각을 1차 완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른바 ‘고려 초조대장경’이라고 지칭하는 “鎮兵大藏經(전쟁(兵)을 진압(鎮壓)한 대장경)”이다. 이 대장경판의 후반부는 의천의 부친이었던 문종 때에 거의 판각되었으며, 진병대장경은 1087년에 완성되었다. 실제로, 고려에서는 高宗(1213-1259) 당시에는 이 대장경을 “鎮兵大藏經” 즉, “전쟁을 진압한 대장경”이라고 지칭하였다(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8-80). 이러한 진병대장경은 현종 당시에 5000軸의 秘藏을 雕造하였고, 문종 당시에 다시 10만송의 契經을 조조하였다. 그 결과 1087년(宣宗 4) 2월에 <開國寺>에서, 3월에 <興王寺>에서, 4월에 <歸法寺>에서 각각 대장경의 완성을 경축한 기록이 있다(『高麗史』 권제10, 世家 권제10, 宣宗 丁卯 4年 2月條, 3月條, 4月條 참조). 따라서 진병대장경의 조조는 1087년에 그 모든 공정과 印經 등이 完了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이 때 의천은 제자인 壽壽 및 쌍계사의 曇眞 등 11인과 함께, 國王의 허락 없이, 정주에서

둘째, 의천은 1086년 4월에 중국 항주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특별히 天台宗의 근본 도량인 國淸寺를 품고 있는 天台山을 향하였다. 드디어 천태산의 정상(頂上)인 정광불룡(定光佛籠)에 당도하여, 의천은 智者大師(天台智顚)의 탑 앞에서 고려에 天台宗을 開創할 것을 發願하게 된다.<sup>6)7)</sup>

요컨대 의천은, 그의 祖父였던 현종과 부친이었던 문종이 심혈을 기울여 각관한 진병대장경이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출가하여 ‘僧統’으로서의 승려 생활을 하였고, 19세 이후부터 1090년(의천 36세) 당시까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에 흩어져 있는 章疏(疏鈔)<sup>8)</sup>들을 총망라 수집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sup>9)</sup>을 編撰한

---

송나라 상인 임영의 배를 타고 入宋하였다. 文宗 당시에 ‘의천은 父王께 송나라에 가고자 청하였으나, 文宗이 허락하지 않았다(『高麗史節要』卷5, 宣宗 2年 4月條)’라는 기록으로 보아, 의천의 入宋 계획은 오래전부터 이미 시도되고 있었다.

- 5) 그리하여 의천은 宋 哲宗을 만나고, 황제의 배려(允許)로 중국 화엄종의 有誠法師 및 杭州의 淨水淨源을 만나 화엄교학을 咨決하는 한편, 중국불교의 각 종파(諸宗)를 이끄는 碩德들과도 두루 교류하였으며, 중국의 ‘章疏 3,000여 권’을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그 결과 의천은 1090년(宣宗 7)에 당시 동아시아 전체 국가에서 당시 現傳하는 모든 章疏들에 대한 세계최초의 章疏目錄인 『新編諸宗教藏總錄』을 編撰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三藏(大藏經)에 第四藏을 附加함으로써, 正藏을 이어갈 수 있는 續藏(諸宗教藏)의 刊行을 추진하였다.
- 6) 즉, “고향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다하여 [天台宗을] 크게 宣揚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천은, 그의 형인 肅宗이 등극한 이듬해인 1097년(肅宗 2) 2월에 고려 天台宗의 本寺가 되는 國淸寺가 落成되자, 5월에 의천은 이 절의 住持로 취임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천은 고려에 천태종을 開創하게 된다. 한편 의천은 ‘1100년(肅宗 5)에 국청사에서 天台智顚의 『法華玄義』 10권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강의하고 뜻을 기술하여 學徒들을 교육하고, 1101년 2월에는 천태종 僧科 大選을 실시해서 40명을 선발하였다’(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89).
- 7) 위와 같은 의천의 생애 ‘47세’의 나이에 ‘승랍 36세’로서 결코 길지 않은 일생이었으나, ‘① 화엄종의 진흥, ② 천태종의 개창, ③ 불교연구서(章疏)의 수집 간행, ④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⑤ 정치적인 자문과 사회사업’ 등 그가 이룬 업적은 실로 큰 것이었다(최병현, “대각국사집 해제,”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15-16).
- 8) 특정 佛經에서 그 내용을 篇·章(단락) 등으로 나누어 그 教義를 論한 것을 ‘章’이라 하고, 經論文句의 뜻을 따라 해석한 것을 ‘疏’라고 한다. ‘鈔’는 불경의 광범한 글의 뜻을 요약하여 추려 엮은 책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疏는 三藏에 대한 註釋을 가리키고, 鈔는 다시 疏에 대한 주석을 말한다.
- 9) 불교의 註釋書를 ‘章疏’라고 부르는 까닭은 불교문헌의 주석이 ‘단락을 나누어 해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章疏나 疏鈔들은 주로 宗派를 위주로 하여 저술·발견되었기 때문에 ‘諸宗’ 또는 ‘百家’라는 표현을 앞세우는 것이다(오윤희,

후, 이 목록에 입각하여 諸宗教藏(續藏經)을 간행함으로써 世界佛教史上 初有의 업적을 이룬 불세출의 고승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의천은 고려에 天台宗을 개창하였고, 鑄錢論을 주장하여 고려에 ‘海東通寶’를 유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의천의 생애 중에서, ‘과연 무엇이 의천으로 하여금 병약한 몸을 이끌고 직접 중국을 다녀오면서까지 동아시아 전체를 망라한 제종교장을 수집·간행하였고, 또한 고려에 천태종을 창립하게 하였던가?’ 등 ‘의천의 생애 중에서 여러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였던 각각의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이었던가?’의 문제를 서지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考究하기 위하여, 먼저 「교장총록」에 수록된 법화·천태 관련 章疏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본 후, 의천이 시대정신에 관한 분석은 「大覺國師文集」 및 「大覺國師外集」 등에 수록된 1차자료를 위주로 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法華·天台 章疏

먼저, 의천이 撰述한 「教藏總錄」에 수록된 「法華經」 관련 章疏는,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台智者의 「法華經注」 7권을 비롯하여 모두 41人の 章疏 60部 234卷을 수록하고 있다.

이제 <표 1>에 제시된 바의 의천이 수집·정리한 법화경 章疏에 대한 특징을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章疏의 중국 저자들은, 먼저 隨(581-618)나라 시대 天台宗의 始祖인 天台智顛(智者大師: 538-597)가 講說한, 이른바 ‘天台3大部’에 해당하는 「法華經文句」 10권 및 「法華經玄義」 10권 등을 비롯하여 吉藏·慧淨·灌頂 등의 傳說的인 「법화경」 연구자들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唐(618-907)나라 시대에는 천태종의 중흥자인 湛然, 三論宗의 큰 별인 吉藏, 法相宗의 始祖인 窺基 등

「일꾼 의천」(서울: 불광출판사, 2012), 274-275. 참고’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9) 略稱으로 ‘教藏總錄’이라 일컫기도 한다.

중국불교에서 탁월한 敎學 연구자들의 「법화경」 관련 章疏들이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모두 수록하고 있음으로써, 중국의 「법화경」 연구서들을 總括적으로 網羅하고 있다는 큰 특징을 보인다. 즉 천태종의 所依經典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에 관한 연구서들을 총괄·망라하여 「교장총록」에 수록하고 또한 간행하였다는 것은, 의천에 의한 고려 천태종의 開創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교장총록」에 편입·채택된 章疏 수록의 卓越性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표 1>에서는 元曉(617-686)를 비롯하여 玄一·道倫·義塾·順憬·太賢·惠雲 신라의 학문승 7인의 ‘章疏 9部 36卷’이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라에서 「법화경」의 연구는 元曉 이후 憬興과 太賢으로 이어져서, 이후 고려 瑜伽宗의 기원을 이루는 所依經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많은 신라의 「법화경」 章疏가 의천 당시까지 전래되었고, 또한 이러한 章疏들을 「교장총록」에 충실하게 망라·수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의천이 ‘海東菩薩’이라고까지 극찬하면서 崇尚하였던 元曉의 논문 중 「法華經宗要」 1卷 등의 2部를 「교장총록」에 수록함으로써, 원효의 「법화경」에 관한 관점을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하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할 수 있다.

셋째, <표 1>에서는 거란(遼)의 학문승인 證明의 ‘疏鈔10卷’ 및 ‘科4卷, 大科1卷’이 수록되어 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교장총록」에 수록된 ‘契丹 출신의 학문승 11人的 章疏 37部 192卷’<sup>10)</sup> 중의 일부이다. 또한 일본의 야상준거의 論考에, 思孝가 거란의 학문승으로 규명되었다. 思孝의 저술에는 「法華經」의 ‘三玄圓讚2卷, 圓贊科1卷’이 敎藏總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천의 장소 수집’에서 遼나라의 당시 現行 불교연구서들인 章疏들을 총괄 수집하여 集大成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10)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考」(京都: 便利堂, 昭和12年(1937)), 42-43.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 및 의천의 시대정신에 관한 서지적 연구

<표 1> 「敎藏總錄」의 法華經 章疏

總錄	經典 [綱]	書名[目] 記入	著者名 記入	著者 國籍	비고
卷第1 (經部) [類]	法華經	注7卷	智者說 (灌頂述)	隨 538-597	智者: 天台智顛 * 天台 3大部
		文句 <sup>11)</sup> 10卷			
		文句科4卷	湛然 述	唐 711-782	唐代 天台宗의 中興者
		文句記10卷			
		判7卷 (惑 10卷)	亡名		
		疏12卷	吉藏 述	隨 549-623	三論宗의 큰 별.
		贊述10卷	慧淨 述	隨 578-645	
		玄贊10卷	窺基 述	唐 632-682	玄奘의 제자, 法相宗의 始祖
		會古通今鈔10卷			
		科4卷 大科1卷	詮明 述	遙(거란)	
		義決1卷	慧沼 述	唐	窺基의 제자
		摭要4卷	契明 述		
		綱要略釋1卷	智因 述		
		疏7卷	玄範 述	唐	玄奘과 同時代(門人)
		疏8卷	玄一 述	新羅	
		疏16卷 (惑 8卷)	憬興 述	新羅 文武王代	文武王: 661-681. 神文王의 國老(國師), 元曉의 後繼者
		古述記4卷	太賢 述	新羅 景德王代	太賢 = 大賢, 瑜伽宗(法相宗)의 始祖
		疏3卷	道倫 述	新羅	『成唯識論要決』의 저자
		玄論10卷	吉藏 述	隨 549-623	三論(中論·百論·十二門論)에 精通
		玄義 <sup>12)</sup> 10卷	智者說	隨 538-597	* 天台 3大部 593. 荊州 講說
		科6卷			
		釋籤10卷	湛然 述	唐 711-782	天台的 法華經玄義의 重要 注釋書
		本迹十妙不二門1卷			
		十不二門指要 鈔2卷 科1卷	智禮 述	宋 960-1028	宋 天台宗 梵臻, 尚賢, 仁岳의 師父
十不二門文心 解1卷 科1卷	仁岳 述	宋	의천 송 체제시 교류		
十不二門總別指歸1卷	梵臻 述	宋 ?-1103	從諫의 師父		
注法華本迹不二門1卷	宗昱 述				
十不二門顯妙1卷	處謙 述				
讀十不二門新注1卷	慈梵 述				

11) ‘文句’는 해석한 句라는 뜻이니, ‘法華文句’는 法華經의 본문의 글을 나누어 설명한 것을 말한다. 곧 經의 章句를 해석해 놓은 것을 ‘文句’라고 한다.

12) 일반적으로 ‘玄’은 ‘오묘하고 깊은 이치’라는 개념으로, ‘玄義’는 ‘幽玄·深妙한 義理를 말함’. 천태대사는 여러 경을 해석할 때 먼저 그 낱말 글귀를 따르지 않고, 그 경의 글

總錄	經典 [綱]	書名[目] 記入	著者名 記入	著者 國籍	비고	
卷第1 (經部) [類]	法 華 經	論三千書1卷	仁岳 述	宋, 義天 當代	의천 송 체제시 교류	
		答三千書1卷	尙賢 述	宋,	의천 송 체제시 교류한 中立의 師祖	
		議方便品題1卷	從諫 述	宋 ?-1108	의천 송 체제시 교류, 梵臻 系列. 의천에게 천태종을 傳法함	
		扶宗權實辨正章1卷				
		答海月大師絳惟十問1卷	彥 述			
		三昧儀1卷	智者 述	隨 538-597	천태종의 始祖	
		釋1卷	曇延 述	中	涅槃經義疏 撰述, 華嚴 大論 十地 實性 등 論을 배움	
		遊意1卷	吉藏 述	隨 549-623		
		要旨記3卷 (惑 1卷)	但云開公 述不見上 字			
		大意1卷	明曠 述			
		宗要1卷	元曉 述	新羅 617-686	法華經의 宗旨와 大要	
		綱目1卷	義塾 述	新羅		
		料簡1卷	順憬 述	新羅		
		料簡1卷	惠雲 述	新羅 (645)	高句麗僧, 唐留學, 645년 新羅使臣과 渡日, 十師의 1人	
		方便品料簡1卷	元曉 述	新羅 617-686	'海東菩薩'(義天)	
		觀音品義疏2卷	智者 說	隨 538-597	천태종의 始祖	
		觀音品玄義2卷				
		義疏 紀2卷 科1卷	智禮 述	宋 960-1028	의천에게 천태종을 傳法한 從諫의 師祖	
		普門品別行疏1卷	窺基 述	唐 632-682	中 法相宗(慈恩教) 始祖	
		三玄圓讚2卷	思孝 述	遙(거란)	日本 이상준정의 論考에 準據	
		圓贊科1卷				
		圓贊演義鈔4卷	志實 述			
		注7卷 科1卷	呂氏 述			
		疏3卷	延秀 述			
		傳10卷	慧詳 述			
		禮讚1卷	亡名			
		智者大師傳1卷	顏真卿 述	唐 709-785	唐의 名筆家	
		別傳1卷	灌頂 述	隨唐 561-632	智者의 제자	
		智者碑文1卷	梁肅 述	唐 751-793	유학자로 황태자의 侍講, 荊溪에게 天台學 배움	
		荆溪碑文1卷				
大乘基法師碑文1卷	李義亦他 人述					

넷째, <표 1>에서 우리는, 의천이 송나라 체재 당시에 중국 천태종의 여러 門徒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의천은 南屏梵臻(?-1103)의 제자인 從諫(?-1108)과 교류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천태종을 受法하였다. 또한 의천은 廣智尙賢의 문도인 中立과 法隣도 교류하였다. 게다가 의천은 靑川仁岳과 그의 제자인 可久 등과도 교류하였다. 梵臻과 尙賢 및 仁岳은 모두 四明知禮(960-1028)의 제자들이다. 그리하여 의천이 중국 천태종의 연구자(승려)들과 교류한 인물들은 從諫·元淨·中立·法隣·仁岳·可久 등을 들 수 있다.<sup>13)</sup> 바로 이와 같은 천태종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從諫·仁岳 등이 저술한 章疏들을 직접 수집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들이 제공하였다고 인지되는 그들의 스승 또는 師兄인 知禮·尙賢·梵臻 등의 章疏들도 빠짐없이 수집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14)</sup> 여기에서 우리는, 의천이 宋에서 체재할 당시에 천태종 승려들과 매우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다는 사실과, 당시 그들과 토론·연구하는 현장에서 당시 유통되고 있었던 천태종의 章疏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수집·정리하는 상황 등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다섯째, <표 1>에서 「법화경」 章疏의 書名記入事項을 주목하여 보면, 그 「綱」이 되는 「法華經」이라는 서명, 즉 佛典名은 생략하고, 해당 章疏의 注·文句·科·判·疏·撰述·玄論·玄義·大意·宗要·傳·別傳·碑文<sup>15)</sup> 등의 識別

13) 박용진, 「의천,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68-69, 230-233. 參照.

「佛祖統紀」(1269)에서는 중국 천태종에서 山家派와 後山外派 등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으나, 이는 13세기 후기의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논의하지 않음.

14) 의천은 從諫에게서 중국 천태종을 受法하였다. 또한 의천이 智者大師塔을 親見하면서 고려에 천태종을 宣揚할 것을 발원하였을 때, 중국 천태종의 明智中立은 楊傑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碑文으로 남겼다. 여기에서 中立은 중국 천태종 廣智尙賢의 法孫이었고, 中立의 제자가 慧照法隣이다.

15) 三藏(大藏經)에 대한 주석서들의 명칭: ① 疏: 經이나 論의 注釋書로서 文句를 자세히 해석하므로 「文義疏·義疏」라고도 하며, 원래의 취지 등을 서술하는 것을 「宣疏」라고 한다. ② 鈔: 疏를 다시 주석한 것으로서 글의 뜻을 요약하여 추려 엮은 것이다. ③ 註: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글이며 「註解」라고도 한다. ④ 科: 경론을 해석하기 위하여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별하는 것으로 「科章·科段·分科」라고도 한다. ⑤ 科文: 각 문단들의 내용을 정리한 후, 간단한 주제어로 분류하여 줄을 그어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⑥ 論: 論師들의 撰述書를 칭한다. ⑦ 論義: 문답을 하여 敎學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講論·

要素와 卷數를 기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목록학에서는, 목록의 기능을 크게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集書 중에서 특정 著作을 검색하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서로 다른 판을 목록상에서 한 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이다.<sup>16)</sup> 여기에 입각하여 『교장총록』에서 법화경을 ‘綱’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모든 법화경에 관한 章疏들을 목록상에서 한 자리에 집중시킴으로써, 標目(單位著作)과 관련한 여러 章疏들의 정보들을 한꺼번에 수록하여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이로써 『敎藏總錄』 표목(단위저작)의 목록기입법은, 현대목록학에서 ‘특정 저작의 서로 다른 판들을 목록상에서 한 자리에 집중시키는 기능’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장총록의 서명 기입 사항에서는 현대목록학에서 중요시하는 목록의 기능까지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고 있는 탁월한 목록임을 파악할 수 있다.<sup>17)</sup>

다음으로, 의천이 撰述한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3에 수록된 ‘天台 관련 章疏’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天台智者의 『摩訶止觀』 10권을 비롯하여 모두 14人의 章疏 34部 130餘卷을 수록하고 있다.

이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장총록』 권제3의 後尾 부분에 수록된天台 관련 章疏群의 수록에 관한 특징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표 2>에 보는 目錄記入上의 특징은, ‘天台 3大部’의 하나인 『摩訶止觀』 10卷을 綱의 상위개념으로 그 筆頭에 記入하고, 그 다음에 摩訶止觀의 하위개념

---

法問·問答’이라고도 한다. ‘論義’의 취지는 교학사상을 분명히 하여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了解 시키기 위한 것이다. ⑧ 集解: 여러 가지 해석들을 모은 책. ⑨ 章: 篇과 章으로 나누어 법문을 논한 것이다. ⑩ 綱目: 사물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자세한 조목이다. ⑪ 料簡: 헤아려 뽑아놓은 책이다. ⑫ 古述記: 옛 논사 혹은 성현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기도 하다. ⑬ 私記: 經論과 疏記에 대한 주석서로서 승가 교육과정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講學과 研究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최종남, 『역경학개론 수업자료집』 (중앙승가대학교, 2015), 8). ⑭ 文句: 經文을 해석하여 놓은 글. 혹은 ‘章’이라고도 하고, 또 ‘疏·述義·記·釋解’라고도 한다.

16) 김태수, 『목록학개론』 (서울: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6), 4.  
17)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論集』 제26집(1997 여름호), 14-15.

(目)으로써 湛然·梁肅 등이 撰述한 ‘科·弘決·搜要記·義例·大意’를 密接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摩訶止觀과 가장 인접한 綱으로서의 다른 부류인 諸宗止觀의 『諸宗止觀』 3卷을 두 번째의 綱으로 배치한 후, 그 하위 개념인 目으로서의 ‘諸宗止觀科’를 묶어서 密接시킨 다음에, 그 후에 ‘小止觀’<sup>18)</sup>과 ‘觀心論’ 및 ‘禪波羅蜜’ 등의 인접주제의 綱들을 차례로 排置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이른바 ‘마음의 문제들’이라 할 수 있는 ‘觀心論’과 ‘禪法’ 관련 부류 및 ‘四念處’ 등을 차례로 배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天台의 저술인 ‘禪波羅蜜’ 10권부터 ‘圓教六卽’ 1권까지의 10부를 排置할 때 ‘圓教六卽’ 1권을 맨 마지막에 按配함으로써, 바로 뒤에 記入되어야 할 灌頂의 ‘八教大意’ 1卷과의 상관성, 즉 교상관석에서의 ‘圓教’와 ‘五時八教의 八教’의 관련 자료를 密接시키고 있다는 卓見(卓見)을 보이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灌頂의 章疏 중에서는 ‘八教大意’ 1卷을 의식적으로 먼저 記入함으로써, 綱의 배열 및 전개의 문제에서 그 위의 저자인 天台의 저술에서의 ‘圓教六卽’ 1卷과의 주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표 2>에서는, 綱의 배열 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止觀’<sup>19)</sup>에 대하여 중국 천태종에서 실천 수행의 관점으로 가장 중요시 하였던 ‘摩訶止觀’을 비롯하여 ‘諸宗止觀’과 ‘小止觀’ 및 ‘觀心論’을 차례로 배열하고 있다. 이어서 천태지자의 저술 중에서 止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禪波羅蜜’·‘禪門口訣’부터 ‘四念處’·‘四教儀’·‘略明開蒙初學坐禪’과 ‘圓教六卽’까지의 전개의 순서에 특별

18) ‘摩訶止觀’과 구별하기 위하여 ‘小止觀’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소지관은 ‘修習止觀坐禪法要’라 하였다. ‘童蒙止觀’이라고도 함.

19) ① 천태종에서,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올바른 지혜로 대상을 비추어 보는 일.

② 止: 범어 sammatha(奢摩他), 觀: 범어 vipasyana(毘鉢舍那(위빠사나))의 譯語. 定·慧를 닦는 二法으로 천태종에서, ‘止’는 모든 번뇌를 그침이요, ‘觀’은 자기의 天眞心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산란한 온갖 妄念을 그치고 고요하고 맑은 슬기(智慧)로써 萬法을 비추어 보는 것을 ‘止觀’이라 함.

히 유념하여 의식적으로 配置함으로써, 智者大師의 止觀과 관련있는 저술 10부를 人爲的으로 按配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태지자의 『圓教六卽』과 유사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灌頂의 『八教大意』를 『圓教六卽』 바로 다음의 綱으로 붙여서 배치하는 이른바 ‘유사(類似)한 주제는 밀접(密接)시킨다’는 원칙을 엄두에 두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표 2> 「教藏總錄」 卷第3, 天台 관련 章疏

總錄	編撰 書名[綱]	書名[目] 記入	著者名 記入	著者 國籍	비고	
卷第3 (論部 및 其他) [類]	摩訶止觀10卷		天台 述	隨 538-597	*天台 3大部	
		科6卷 弘決15卷(惑11卷 惑30卷 開合而已) 搜要記10卷	湛然 述	唐 711-782	唐代 天台宗의 中興者	
		刪定止觀6卷	梁肅 述	唐 751-793	유학자로 황태자의 侍講, 荊溪에게 天台學 배움	
		止觀義例1卷 止觀大意1卷	湛然 述	唐 711-782	唐代 天台宗의 中興者	
		諸宗止觀3卷		道弼 述		
			科1卷			
		小止觀1卷 觀心論1卷		天台 說	隨 538-597	天台宗의 始祖
			疏1卷	灌頂 述	隨 唐 561-632	天台智者의 제자
		禪波羅蜜10卷 禪門口訣1卷 六妙門禪法1卷 方等行法1卷 覺義三昧1卷 四念處4卷 般若玄論1卷 四教儀4卷(惑12卷 本開合而已) 略明開闡初學坐禪 止觀要文3卷 (惑1卷) 圓教六卽1卷 八教大意1卷 國清百錄1卷		天台 述	隨 538-597	天台智顓 = 天台智者 天台宗의 始祖
				灌頂 述	隨 唐 561-632	天台智者의 제자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 및 의천의 시대정신에 관한 서지적 연구

總錄	編撰 書名[綱]	書名[目] 記入	著者名 記入	著者 國籍	비고
	四教儀1卷		諦觀 述	高麗 ?-970	고려天台學을 중국에 전함
		科1卷	仁岳 述	11世紀後期	義天 宋 滯在時 交流人
		科1卷			
		集解3卷	從義 述	宋 1042-1091	天台宗 尙賢의 法孫
		講義3卷	從陳 述		
		問答1卷	亡名		
		地位集解1卷	亡名		
	天台法數10卷		智親 編		
	天台文類10卷		如吉 編		
		類集口義13卷	繼忠 錄		

셋째, <표 2>의 ‘天台 摩訶止觀 관련 章疏’의 群에서는 止觀과 관련된 天台·湛然·灌頂의 저술들을 일괄적으로 배치한 이후에, 고려 제관(諦觀)<sup>20)</sup>의 『天台四教儀』를 ‘四教儀’라 하여 이 목록에 채택한 후, 이 『天台四教儀』와 관련되는 ‘科·集解·講義·問答·地位集解’ 6부를 그 하위개념으로 종속시켜 배치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교장총록』 권제3의 후미에서는, 천태종과 관련한 章疏의 수록에서 고려 제관의 『천태사교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이 저술과

20) 제관(諦觀): 『佛祖統記』 권10'에 그의 전기가 일부 전하고 있다. 중국의 吳越王 錢俶은 『永嘉集』에 ‘同除四住’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고 德韶에게 그 뜻을 물었다. 덕소는 이 말을 ‘教義’라 하여 천태종의 義寂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의적은, 이것이 智者大師가 저술한 『妙法蓮華經玄義』의 ‘위묘(位妙)’에 나오는 문구라고 하면서, ‘당나라 말기에 천태종의 책들이 모두 해외로 유출되어, 이제는 다시 보기 어렵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이에 오월왕은 사신에게 글월과 함께 50종의 보배를 주고 고려에 가서 천태종 관계 서적을 구해도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의 광종은 960년(광종 11)에 제관에게 命하였고, 이에 제관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 때 광종은 “教乘 가운데 『智疏論』·『仁王疏』·『華嚴骨目』·『五百門論』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 중국에 가서 스승을 구한 다음 어려운 질문을 던져 대답하지 못하면 곧 책들을 거두어 가지고 올 것을 당부하였다. 중국으로 건너 간 제관은 나계사(螺溪寺)의 의적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10여 년 동안 함께 천태학을 연구하였다. 그 때 자신의 유일한 저술인 『天台四教儀』를 지었으나, 상자에 감추어 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제관은 앓은 채 죽었으며, 끝내 귀국하지 못하였다. 죽은 뒤 그가 쓰던 상자에서 빛이 났으므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열어 보니 『천태사교의』만 들어 있었다고 한다(① 『佛祖統記』. ② 김영길, “高麗 諦觀의 渡宋에 관한 考察,” 『한국불교학』 3 (한국불교학회, 1977)).

이에 따른 중국 宋나라 학문승들의 연구 저술들을 아울러 밝힘으로써, 『천태사교의』를 저술한 제관의 업적과 위치를 목록상에서 직접 나타내어 보이고(顯示)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표 2>에 제시된 天台 章疏에 관한 著者明記入 사항을 살펴보면, 예컨대 “天台述”에서 보면, “天台”라는 저자의 法名을 먼저 기입하고 그리고 “述” 또는 “說·編·錄” 등으로 明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亡名”이라고 明示함으로써, 後代에 그 저자명을 파악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기입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는 목록을 기입할 때 추가 著錄의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교장총록』의 저자명 기입에 있어서 최대의 특징은, 먼저 저자명을 기입하고 난 뒤 연이어서 ‘述·說·注·編·錄·集·頌·刊纂’ 등으로 그 저술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明示함으로써 ‘著者·說者·注者·編者·錄者·集者·刊纂者’ 등을 일일이 엄격하게 구분하여 摘記함으로써 논리성과 간결성 및 식별성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교장총록』 권제3 後尾 부분의 ‘天台 관련 목록’에서 認知할 수 있는 최대의 특징은, 의천은 『교장총록』의 후미에 불교의 실천수행법인 觀心門을 밝힌 『摩訶止觀』 10卷을 비롯하여 ‘諸宗止觀·小止觀·觀心論·禪波羅蜜’ 등과 제관(諦觀)의 『天台四教儀』 등 천대 관련 章疏 34部 130여 권을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高麗에 天台宗을 開創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요컨대, 『교장총록』 書誌記述單位著錄의 특징은, 첫째 書名記述에서 表目과 중복되는 제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고, 둘째 著者名記述에서 저자의 法名만을 채록하거나, 셋째 각 章疏에서 著者名 및 그밖에 관련이 있는 기타 人名과를 엄격하게 區別하는 방식 등은, ‘와이너(B. S. Wyner)가 제시한 목록의 조건에서 ① logicity(논리성), ② flexibility(유연성), ③ quickness(신속성), ④ compactness(간결성), ⑤ economic(경제성)의 조건’<sup>21)</sup>도 모두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장총록』 著錄의 탁월성(卓越性)을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21) 김태수(1996), 9.

### 3. 의천의 시대정신

본 장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의 생애에서, 과연 무엇이 병약(病弱)한 몸을 이끌고 중국 대륙을 왕래하면서까지 동아시아 전체에 산재한 章疏들을 수집하여 諸宗教藏을 간행하게 하고, 또한 고려에 天台宗을 개창하게 하였는가?’ 하는 의천의 시대정신을 考究하기 위하여, 의천의 入宋求法 시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① 입송구법 이전(1073-1084)의 시기, ② 입송구법 당시(1085-1086)의 시기, ③ 귀국 후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찬술(1090) 및 제종교장의 간행 시기, ④ “내시 文冠에게 준 글”(1091)의 시기, ⑤ 고려 천태종의 開創(1097)과 관련한 시기’로 크게 5구분하고, 이에 따라 의천의 각 시대정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3.1 入宋求法 이전의 시대정신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의천은 그의 祖父인 顯宗이 彫造한 鎭兵大藏經을 보면서 성장하면서 11세에 自進出家하였고, 19세 때에는 드디어 “세자를 대신하여 教藏의 수집을 발원하는 글(代世子集教藏發願疏《年十九歲(1073)作》)”<sup>23)</sup>을 文宗께 상소하게 된다. 즉,

… 삼가 생각하건대, 세존(婆迦婆: 바가바)께서는 … 霹靂를 크게 떨치고 法雨를 멀리 적시어 菩提의 길을 가르치고 海탈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못 중생을 계도하고 지극한 교화를 펼치셨으니, 이를 통해서 識心見性하고 返本還源<sup>24)</sup>한 자들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 鶴樹(사라쌍수)에서 빛을 숨기심에, 葉巖(칠엽암굴)에서 [부처님의 설법들] 結集하였고, 馬鳴과 龍樹(나 가르주나)의 무리가 論을 지어 經을 宣揚하였으며, 無着과 天親(세친)의 무리가 그 일을 계승하여 더욱 꽃피웠습니다. … [‘起’ 문단]<sup>25)</sup>

22)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論集』 제26집(1997 여름호), 15-16. 참고.

23) 『大覺國師文集』 제14권에 수록된 “代世子集教藏發願疏”에는, 제목 바로 뒤에 ‘年十九作’이라 明記되어 있다.

24) ‘十牛’의 제9단계인 ‘본래로 돌아온다는 뜻’을 말하는 것으로, ‘깨침을 얻어 부처가 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 [중국에서는] 漢나라 때에 와서야 비로소 白馬를 맞이하였습니다.<sup>26)</sup> 騰關<sup>27)</sup>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 그리하여 眞詮을 거듭 번역하여 名敎를 크게 선양하였으니 … 四依 보살이 이따금씩 나와 疏를 지어 발양하고 삼장법사가 또 걸출하게 나와 鈔를 펼쳐서 補益하였습니다. 그리하여 遺文이 번창하여 퍼지면서 온 세상이 받들어 행하게 되었으니, 실로 한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마쳤다고 말할 만합니다. [‘承’ 문단]<sup>28)</sup>

삼가 생각하건대, 저(某: 의천)는 일찍이 … 태어나 … 어찌하여 수록재를 원만하게 배풀기도 전에 조그마한 몸이 그만 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비록 五陰이 싫다고 하더라도 어찌 한 세상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신체의 康和를 얻는다면 … 수명을 더욱 연장 … 또한 계속 서원을 세워서 다시 닦아 나갈 것입니다. [‘轉’ 문단]<sup>29)</sup>

돌아본건대, … 비록 經論(大藏經)은 갖추어졌으나 疏鈔는 부족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高僧에 걸쳐 遙나라와 宋나라에 있는 百家의 科敎(章疏)를 一藏으로 모아 유통시킴으로써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여 사탄 그물의 매듭을 풀어 버리고, 像法을 다시 일으켜 국가를 이롭게 함은 물론, 恒沙와 같은 세계의 群生 모두에게 금강의 선한 씨앗을 뿌리고, 다함께 보현보살의 도를 배워 노사나불의 이상향에서 노닐게 하고자 합니다.<sup>30)</sup> [‘結’ 문단]<sup>31)</sup>

- 25) ‘起’ 문단에서 의천은,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의 깨침 및 중생교화와 열반’에서부터 ‘佛經의 결집 및 그 후 인도에서의 마명·용수 등에 의한 論의 성립과 선양’을 논급함으로써, 석가모니에 의한 불교의 發祥에서부터 대승불교의 성립과 선양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인도 불교에 대한 精通한 지식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당시 의천은 이미 通時的으로 불교 전반의 역사를 간파하고 있으며, 아울러 심오하게 체계화된 지식정보를 완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26) 불교 典籍이 처음으로 중국에 전래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중국 전래의 시기는, A.D. 67년(後漢 永平 10)에 황제가 印度에 파견한 일행이 白馬에 불교 경전을 싣고 淸陽(洛陽)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 후에 이를 기념하여 현재의 淸陽시의 동북쪽 12km 떨어져 있는 漢魏의 洛陽城 내에 <白馬寺>를 창건하였다.
- 27) 騰關: 중국에 불교를 처음 전하고 譯經을 시작한 攝摩騰과 竺法蘭을 並稱하고 있음.
- 28) ‘承’ 문단에서 의천은, 불교의 중국 전래와 각 경론의 중국어 번역(漢譯)을 비롯하여 한역된 경론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서인 ‘疏鈔들의 저술 및 그 중요성’을 條理있게 논술하고 있다.
- 29) ‘轉’ 문단에서 의천은, 치유 불가능한 병마(病魔)에 자신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신체의 강화 및 수명의 연장을 얻어 서라도 기필코 서원을 이루겠다’고 굳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자신의 생명 연장을 담보로 하여서라도 그 서원을 이루겠다’는 의천의 決意는 사뭇 숙연(肅然)하기까지 하다.
- 30) 義天, “代世子集敎藏發願疏,”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285-286. 이상현 선생의 『대각국사집』 번역[내용]은 그 原文을 대조하여 검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번역이 모범적이고 秀麗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각국사집』에

라 하였다. 위 상소문은 ‘世子를 대신하여 동양 전체에 散在된 대장경 三藏에 관한 모든 章疏들을 수집하여 大藏經을 補續하는 教藏을 완성하여 유통시킴으로써 像法時代와 같은 불교의 융성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일종의 宣言文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의천은 ‘19세(1073) 당시에, 고려(신라 포함)를 비롯하여 중국(宋)과 요(遼)나라 등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章疏들을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일장(一藏)으로 결집하여 유통시키겠다’는 실로 광대(廣大)한 서원(誓願: 發願)을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발원은 의천 개인의 사사로운 서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책임져야 하는 세자, 즉 ‘왕실을 대신하여 수행하려는 국가적인 사업의 발원으로써, 이른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의천은 고려에서 鎮兵大藏經의 彫造가 완성되어 가는 시점(1073)에서 중국(宋)과 요(遼)나라의 章疏들을 수집하겠다는 서원을 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신편제종교장총록」이 편찬되는 시점(1090)에서는 우리나라(新羅·高麗)를 비롯하여 중국(隨·唐·宋)과 요(遼)<sup>32)</sup>·西域<sup>33)</sup>의 高昌國<sup>34)</sup>·일본<sup>35)</sup>까지

번역된 내용을 인용문으로 채택할 때, 그 原文의 附記를 생략함.

- 31) ‘結’ 문단에서 의천은, 당시 고려에 經論 즉 鎮兵大藏經(초조대장경)은 이미 갖추어졌으나, 부족하기만 한 章疏에 대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을 통틀어 수집하여 ‘百家의 科敎(諸宗教藏)를 一藏으로 결집하여 유통시킴으로써 佛法을 외호(外護)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논술하고 있다.
- 32) 『大覺國師外集』 권제8에 요(遼)나라의 어사중승 아율사제(耶律思齊)의 서신 3통을 확인할 수 있다. 제2통의 내용에 의하면 “삼가 승통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經敎를 잘 받았습시다...”라 하였고, 제3통의 내용에 의하면 “전에 보여주신 목록과 관련하여 ...”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의천은 아율사제에게 고려에서 유통되는 章疏(經敎)들과 그 목록을 요나라에 이미 보내주었고, 아울러 요나라에서 유통되는 소초들에 대한 수집 열망을 여러 차례 표명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33) 지금의 新疆省.
- 34) 서역의 고대국가인 코초(Khocho)왕국을 말한다. 지금의 신장성 투루판(吐魯番: Trufan)의 동남쪽 외곽인 카라호자 지역에 위치한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였다. / 『대각국사외집』 제8권에는 ‘고창국 환석(幻石) 시라부저가 보낸 글’ 2首와 ‘고창국 전계(傳戒) 발다라선이 보낸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의천은 고창국에서 저술된 疏鈔의 수집에도 熱意를 가지고, 고창국의 여러 범사들과 서신으로 빈번하게 정보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5) 『大覺國師文集』 권제14에 “日本國의 여러 法師들에게 教藏의 수집을 요청하면서 부친 글(寄日本國諸法師求集敎藏疏)”이라는 제목이 기입되어 있는 의천의 편지를 확인할 수

아우르는 동양 漢字文化圈 전체의 불교연구서(章疏)들을 총괄적으로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百家的 科教(章疏)를 一藏(續藏: 諸宗教藏)으로 결집하여 유통시키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의천은 고려에서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이 완성되어가는 時點인 19세(1073) 당시의 의천은, 동아시아 漢字文化圈의 모든 국가에서 저술된 正藏에 관한 연구서들인 章疏들을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一藏으로 결집한 諸宗教藏을 유통시킴으로써, 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계승(補續)하여 佛法(像法)<sup>36)</sup>을 다시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려는 의천의 시대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

### 3.2 入宋求法 당시의 시대정신

앞의 節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대장경을 보완하고 그 뒤를 잇고자(補續)하는 章疏 수집 및 제종교장의 결집에 관한 19세 당시 의천의 시대정신은 드디어 ‘入宋求法’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중국 章疏의 수집 사업’은 본격화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의천은 1085년 4월 8일에 제자 壽介 등과 함께 정주에서 송나라 상인 임영의 상선을 타고 송나라로 떠나게 된다.

1085년 5월 2일 송나라 密州 板橋鎮이 도착한 이후, 의천은 송나라 황제 哲宗의 환대를 받으면서, 중국 화엄종의 有誠法師와 淨源法師 등을 비롯한 13인, 천태종의 從諫 등 8인, 禪宗의 宗本 등 6인, 戒律宗의 擇其 등 3인, 法相宗의 慧林 등 2인, 西天梵學의 天吉祥 등 2인, 宗派未詳의 희담(希湛)을 비롯한 10인 등등과 교류하게 된다.<sup>37)</sup> 도합 6개 종파의 승려 44명 정도이다.<sup>38)</sup>

---

있으므로, 의천은 日本의 여러 法師들로부터 日本 所在 章疏들을 수집하고자 다각도로 조처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36) 불교의 ‘三時說’ 중 正法의 시대(佛滅後 5百年 또는 1千年까지 佛陀의 바른 教法이 가장 바르게 왕성한 시기)와 유사한 ‘正法時期 이후 1千年的 시기’. 이 시기에도 불타의 교법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시기로 간주함.

37) 의천이 入宋求法時에 교류한 宋의 승려들은,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68, 64-71.’에 그 상세한 연구가 있음.

38) 이 중에 11명은 『대각국사문집』에 書信 교류한 사실이 전하며, 직접 만났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이 의천은, 1085년 5월부터 그 이듬해인 1086년 5월까지, 송나라를 周遊하는 동안 많은 學問僧들과 禪僧 등과 교류하면서 大藏經을 補續할 수 있는 모든 章疏의 수집에 온 정열을 다 쏟았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의천은 1086년 5월에 송의 周遊와 求法을 마치고 고려에 귀국<sup>39)</sup>하는 길에 오르면서, 특별히 天台山 定光佛籠에 올라 智者大師의 탑을 參拜하고, ‘天台智顓의 탑 앞에서 고려에 天台教觀을 宣揚(天台宗의 開創)할 것을 誓願하였다’<sup>40)</sup>는 점이다.

한편, 林存의 <仙鳳寺 大覺國師碑文>에 의하면, 의천이 “高麗에 臣(義天)이 天台宗門을 세울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예태후께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은 “肅祖(肅宗)가 潛邸(私邸)에 있었을 때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의천이 고려에 천태종을 開創하겠다’고 그 시대정신을 표출한 시기는 바로 宣宗이 등극할 당시인 1084년의 일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sup>41)</sup>

그리하여 1086년 5월초에 의천은 “송나라 天台의 탑을 참배하고 발원한 글(大宋天台塔下親參發願疏)”에서,

우모(右某: 義天)는 머리를 조아리고 歸命하며 천태교주이신 지자대사께 아뢰니다. / 일찍이 들건대, 대사께서는 五時八敎의 敎判으로 동쪽에 전해진 한 시대의 聖言을 분명히 해석하여 미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후세에 불교를 배우는 자들이 어찌 이를 말미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吾祖 華嚴疏主<sup>42)</sup>께서도, ‘賢首의 五敎는 天台와 대략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분명치 않다. 그밖에 의천의 입송구법 때에 송나라의 교류한 관료들은 主客員外郎 楊傑 등 ‘皇帝使臣 4人·館伴官僚 4인·地方長官 8餘人’ 등 多數人을 확인할 수 있다.

39) 의천은 1086년 5월 20일에 송나라 定海(영과 진해)에서 高麗 朝賀回使의 배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5월 29일에 고려의 예성강에 도착하였다.

40) 이 때 의천을 隨行하였던 宋의 주객원외랑 楊傑과 천태종 山家派의 沙門 中立이 의천의 서원을 기록하여 碑石을 세웠다고 한다.

41) 왜냐하면, 이 대화는 宣宗이 즉위(1084)한 이후부터 의천의 入宋求法 시기인 1085년 이전의 시기를 추적하여 보면, 자연스럽게 1084년 무렵에 숙종 및 인예태후와 의천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42) 중국 화엄종제4조인 淸涼國師 澄觀의 별칭이다. 華嚴菩薩이라고도 한다. 그의 『화엄경소』 권2에 ‘賢首의 敎判이 天台와 대략 같다’는 말이 나온다(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290).

/ 삼가 생각하건대, 본국에도 옛날에 제관(諦觀)이라는 이름의 人師가 대사(智者)의 教觀을 강연하여 해외(중국)에까지 유통되었는데, 전습(傳習)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 나머지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某: 의천)가 발본하여 몸을 잊고 스승을 찾아 도를 묻다가 지금 전당(錢塘)의 자변(慈辯)대사 講下에서 교관의 가르침을 받고 그 大要를 알게 되었습니다. 뒷날 고향에 돌아가면 목숨을 다하여 크게 선양(宣揚)함으로써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애쓰신 대사의 은덕에 보답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서하는 바입니다.<sup>43)</sup>

라 하였다. 즉 의천은 천태 지자대사의 탑 앞에서 ‘高麗에 天台宗을 開創하겠다’는 서원을 표명하였다.

위와 같이 의천은 1084년 무렵 入宋求法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宋나라에서의 周遊를 마치려는 1086년 5월초 당시까지, 의천의 시대정신은 고려에 천태종을 개창하겠다는 염원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3.3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 및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당시의 시대정신

앞의 절에서 논급한 “代世子集教藏發願疏”에서는, 의천은 당시 부족한 疏鈔들을 수집하여 一藏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이른바 鎮兵大藏經 三藏에 第4藏을 추가함으로써 대장경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하였음을 이미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의천의 章疏 수집에 대한 시대정신의 궁극적인 念願은 “新編諸宗教藏總錄序”(1090.8.)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sup>44)</sup>

… 나는 일찍이 ‘經論(대장경)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章疏가 없으면 [대장경]을 유통시킬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昇公(智昇)의 護法の 뜻을 본받아 教述(章疏)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 / 이제 그동안 수집한 바, 諸宗에서 찬술한 新舊의 章疏들을 감히 사적으로 秘藏할 수 없기에 모두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뒤에 다시 얻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록할 생각이다. 앞으로

43) 義天, “大宋天台塔下親參發願疏,”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279.

44) 이 서문은 의천의 나이 36세 때인 1090년에 작성한 것이다.

**編次할 函帙이 三藏의 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해진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 때는 후고려(後高麗) 13대 임금님이 즉위하신 지 8년째 되는 경오년(庚午: 1090) 8월 초과일에 해동전화엄대교사문(海東傳華嚴大教沙門) 모(某: 의천)가 짓다.<sup>45)</sup>

라 하였다. 위 인용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첫 문단에서 의천은 ‘고려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장경(經論)[의 내용]을 제대로 유통[이해 및 파악]시킬 수 있는 章疏의 수집을 위하여 몸소 20년간이나 노력해 왔음’을 明示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천은 수집된 장소들을 一藏으로 결집하기 위하여, 章疏目錄으로서 세계에서 효시(嚆矢)를 이룬 『新編諸宗教藏總錄』을 編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천이 20년간이나 몸소 애써 수집한 장소들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體系化하여 이를 目錄化하였는가의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는, 의천이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할 당시의 시대정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위 두 번째 문단에서 의천은 「교장총록」에 편찬된 모든 章疏들을 간행함으로써, 간행된 모든 章疏(函帙)들이 三藏의 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래되기를 所望한다!’는 관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천은 자신이 애써 수집한 장소들을 결집하여 『교장총록』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一藏(續藏)<sup>46)</sup>으로 모아서 三藏(大藏經)을 이어갈 수 있는 이른바 ‘第4藏’을 추가시켜서 並存될 때,<sup>47)</sup> 大藏經 三藏과 제종교장이라는 第4藏이 함께 유통되어야 비로소 대장경의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통적인 三藏에 章疏를 결집한 별도의 一藏(諸宗教藏)을 추가시킴으로써, 고려의 대장경을 四藏’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던 의천의 用意周到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의천은 大藏經에 諸宗教藏(續藏)을 첨가시킴으로써 불교의 護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당시 의천의 시대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

45)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62-63.

46) 서진수·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64.

47) 즉 正藏인 대장경을 ‘경·율·논의 三藏’으로 표현하면 續藏인 諸宗教藏은 이른바 ‘第4藏’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지는 의천의 “代宣王(宣宗)諸宗教藏彫印疏”(1090.8. 이후 추정)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입증할 수 있다.

… 대저 부처(佛)가 설한 것이 經이요, 경에서 나온 것이 論이니, 경은 논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논은 疏를 기다려서 풀리고, 소는 義를 모아 밝히지며, 義는 스승(師)을 통해서 서술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어서 주역(紬繹)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智者(智顛)가 천태산에서 宗旨를 수립하고,<sup>48)</sup> 遠公(慧遠)이 정영사에서 가르침을 내릴 수 있었으며, 慈恩(窺基)과 안국(安國[寺]: 利涉)이 衆說을 三時<sup>49)</sup>로 종합하고,<sup>50)</sup> 賢首와 淸涼이 異端을 五教로 회통시킬 수 있었습니다.<sup>51)</sup> 그리고 南山의 行事[南山 律宗]와 東塔의 開宗[東塔 律宗]) 등이 나왔는가 하면,<sup>52)</sup> 후대에 諸家에 미처서는 거의 白氏를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원성(元聖: 원효)으로부터 보잘것없는 이 몸 [義天]에 이르기까지 衆善(衆善)을 돈독히 하여 국가를 보전하였고 … **현조(顯祖: 현종)께서는 5천 축(軸)의 비장(秘藏)을 새기셨고, 문고(文考: 문종)께서는 10만 송의 계경(契經)을 새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문(正文: 대장경)은 원근에 퍼지게 되었으나, 장소(章疏)는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널리 외호(外護)하는데 뜻을 둔다면, 실로 … (결략) …<sup>53)</sup>**

라 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의천은 위 인용문의 제목을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라고 命名한 이유는, 제종교장 간행(彫印) 사업은, 왕(宣王: 宣宗)을 대신하여, 이른바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sup>54)</sup>

48) 天台智顛가 天台宗을 開創한 것을 의미한다.

49) 三時: ① 有·空·中 3時; 法相宗, ② 種·熟·脫 3時; 天台宗.

50) 慈恩窺基가 개창한 慈恩宗(法相宗)을 의미한다.

51) 賢首法藏이 개창한 華嚴宗을 의미한다. 淸涼澄觀은 화엄종의 제4祖로서 의천이 존경하였던 인물이다.

52) ① 南山: 從南山의 道宣이 『四分律行事鈔』를 지은 것을 말한다. ② 東塔: 長安 崇福寺 東塔의 懷素가 『四分律開宗記』를 지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문장은 곧 ‘律宗의 開創’을 의미한다.

53)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권제15,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300-301.

54)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는 『신편제종교장총록』의 편찬(1090)이 완료된 이후, 『교장총록』에 입각하여 제종교장의 목판 판각이 시행되었을 것이며, 그 제목에서 ‘선종(宣宗)을 대신

둘째, 위 인용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되는 ‘章疏’ 등의 意義는 특히 주목되는 바, 의천은 “부처가 설한 ‘經’은 ‘論’을 통하여 그 뜻이 드러나며, ‘논’은 다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학문승의 논저인 ‘疏’를 통하여 그 내용상의 심층적인 깊은 뜻을 꿰뚫어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소’는 註解 등의 여러 ‘義’들을 모아서 학습함으로써 그 疏의 뜻을 헤아려 밝혀지며, 이러한 ‘의’는 수행 및 지혜가 밝은 스승(師)의 강의 및 해설 등을 통하여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천 자신의 대장경에 관한 교학사상’을 상세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5)</sup> 이로써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은, ‘대장경의 각 경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설 등을 논술한 소초 등으로 개개 經論의 심오한 뜻을 드러내고 헤아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佛法을 外護하려는 당시 의천의 시대정신을 피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6)</sup>

셋째, 의천이 몸소 수집한 章疏들을 결집하여 이를 “諸宗教藏”이라고 특별하게 명명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의천이 수집하여 결집하려는 章疏의 一藏, 즉 ‘대장경(正藏)을 補續하는 續藏’이라는 의미로써 “諸宗教藏”이라고 특별하게 命名한 것은, 수집된 여러 章疏

---

하여 제종교장을 조인(彫印)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의 작성년대는, 제종교장의 편찬년도인 1090년 8월 이후의 바로 그 무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5) 즉, 의천은 대장경을 구성하는 각 불경의 이해를 위해서는, ‘經 ← 論 ← 疏 ← 義 ← 師’와 같이 그 역순(逆順)의 차례로 각각 그 하위의 ‘論·疏·義·師’의 해설이나 설명 및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엉클어진 실타래에서 명주실을 풀어내듯(紬繹), 각 경전의 심오한 내용들을 이해·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 바로 이 사항은 이른바 ‘의천의 불교 학습에 관한 順次的인 원리’이면서 동시에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 부분은, 의천이 『신편제종교장총록』에서 모든 제종교장을 분류할 때 각 경론의 書名을 상위 개념(subject heading)으로 두고, 그 해당 경론의 서명 아래에 해당되는 각각의 章疏들을 按配한, 이른바 ‘교장총록의 분류원칙’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6) 다시 말하여, 대장경에 관한 義天의 敎學思想은, 이른바 ‘대장경의 각 經典을 동전(銅錢)의 앞면(前面)이라고 한다면 제종교장의 각 章疏는 동전의 뒷면(後面)처럼 看做함으로써, 佛經은 論·疏·義·師의 역순으로 각각 그 해설과 도움을 통하여야만 비로소 완전한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뚫리고·밝혀지고·서술됨으로써 마침내 각 경전의 대의(大意)가 드러난다’는 논리임을 파악할 수 있다.

들은 모두 중국과 고려에서 형성된 각 宗派佛敎의 所産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위 인용문의 둘째 문단에서, 의천은 天台智顛의 天台宗, 慈恩窺基가 개창한 慈恩宗(法相宗), 賢首法藏의 華嚴宗, 南山道宣의 律宗 등 중국에서 개창·선양되는 여러 宗派(諸宗)를 논하고 있다.<sup>57)</sup> 의천은 바로 이와 같은 중국 및 한국의 諸宗에 의하여 저술된 모든 장소, 즉 諸宗의 章疏들을 수집하여 敎藏으로 결집·유통시킴으로써, 대장경의 심오한 의미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의천의 신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의천은, 중국에 비하여, 신라와 고려에 없던 天台宗을 개창하였던 의천의 시대정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위의 인용문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의천의 祖父인 현종이 조조한 '5千軸의 秘藏'은 현종 시대에 조조한 鎭兵大藏經을 말하는 것이며, '10萬頌의 契經'은 의천의 부친인 문종 시대에 거란대장경 소수(所收)의 경론 및 송 신역(宋新譯) 경전 등을 편입하여 조조함으로써 고려초조대장경(鎭兵大藏經)을 완성한 史實을 논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려에서 완성된 진병대장경(正藏)을 外護하기 위해서는 續藏인 제종교장의 彫印(板刻 및 印刷)이 반드시 隨伴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의천은 그의 祖父인 顯宗과 父親인 文宗이 완성한 고려 鎭兵大藏經(초조대장경)을 보완하고 이을(補屬) 수 있는 敎藏의 一藏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전체에 散在하여 있는 모든 章疏를 수집하여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는 세계 初有의 章疏目錄을 편찬하였고, 이 목록에 입각하여 諸宗教藏(屬藏

57) <선봉사 대각국사비문>에서는, 의천이 入宋하였을 때, 의천에 대한 宋나라의 공식 수행원으로 임명된 主客員外郎 양길(楊傑)의 표현을 빌어, <송나라에서 귀국할 즈음에 主客[양길]이 禪宗과 敎宗의 諸公에게 일렀다. “예로부터 바다를 건너 求法한 성현이 많지만, 어찌 승통[의천]이 한 번 중국에 와서 ‘天台·賢首·南山·慈恩·曹溪·西天梵學’ 등을 한꺼번에 전해 받은 것과 같은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法을 弘布하는 大菩薩의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대로 표현한 말일 뿐, 결코 지나치게 칭찬한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林存, “僊鳳寺大覺國師碑文,” 『大覺國師外集』 제13권, 『대각국사집』, 721.)>라 하였다. 이 비문에서의 ‘諸宗’에 관한 언급은 ① 천태종, ② 화엄종, ③ 율종, ④ 법상종, ⑤ 禪宗, ⑥ 西天梵學’ 등을 지칭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經)을 간행하였다.<sup>58)</sup> 이와 같은 ‘章疏의 수집을 통한 제종교장의 간행’이라는 의천의 시대정신은 곧 大藏經 三藏에 ‘章疏의 結集이라는 第4藏을 추가함’으로써 ‘완전한 4藏으로 구성된 대장경’을 後世에 전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4 “與內侍文冠書” 당시의 시대정신

의천은 “내시 문관에게 준 글(與內侍文冠書)”(1091)에서

모(某: 義天)은 아뢰니다. / 어제 저녁에 다시 유지(有旨)를 전하며, 임금님의 뜻을 곡진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성상(聖上)의 겸손(謙損)하신 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서 너무도 감명을 받아 어떻게 형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낙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나의 所懷를 자세히 설명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요즈음 御史臺<sup>59)</sup>의 奏文(上疏文)에 의하면, 내가 ‘승려에게 表白 문자를 시험 보이는 일<sup>60)</sup>은 옳지 않다고 논하면서, “만약 僧統(義天)에게 표백의 試選을 주관하게 한다면, 이는 教義를 배우는 후진들이 표백의 시선을 관장하는 일을 구하는데 뜻을 두고 章句를 배우는 데에만 힘쓰게 함으로써 本宗의 경론에는 정통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士儒가 학문에 뜻을 둘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고 考試를 관장하는 일에 뜻을 두고 학문에 힘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른바 策文을 지어 과거에 급제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인의 도를 배워 성인의 세상을 보좌함으로써 백성을 ‘仁壽의 영역<sup>61)</sup>으로 이끌어 태평을 이루고자 함이나, 이것이 바로 일반

58) 『大覺國師文集』卷第10]에 [“宋나라 행자 安顯에게 준 글”에서, “... / ... / 근래에 王旨를 받들어 諸宗의 章疏를 수집해서 거의 수 천 권을 雕板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某集 약간과 某冊 약간을 부쳐 보내니, 秀州에 도착하는 날 仲梨(仲閔梨) 位通 문하에 나아가서 이러한 뜻을 말로 전해주기 바란다(... 比來奉王旨 鳩集諸宗章疏[僅數]千卷 鏤板次. 今先附去 [某]集若干 [某冊]若干. 到秀州日 請詣仲閔梨位通下[仍]爲口 [傳]此義”)라고 한 것을 보아, “代宣王(宣宗)諸宗教藏彫印疏”(1090.8. 이후 추정) 이후에, 제종교장의 雕板과 刊行이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종교장의 조판 및 간행 사업은, 의천의 강력한 推進力으로 미루어 보아, 1090년 8월 이후부터 의천이 입적한 1101년 사이의 그 十年 사이의 기간 동안에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59) 고려 때, 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의 교정이나 百官의 糾察을 맡아 보던 관아.

60) 僧科의 하나인 表白科를 일컫음. 승과 시험.

61) 天壽를 다하며 살 수 있는 태평성대.

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지들이 이미 이와 같다면, 어찌 佛子들만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 … 그리고 숙세의 인연에 힘입어 16, 7세 무렵부터 서방 성인(釋氏;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종사하여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釋氏)의 교법 중에 중국에 유통된 것이 백(百)에 한둘도 안되지만, 지금 전하는 三藏(大藏經: 一切經)의 正文이 거의 6, 7천권에 이르고, 그밖에 古今の 賢哲이 註疏를 낸 것이 1천년 동안 어느 시대이고 없지 않아서 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출중한 재능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몸을 마치도록 그 업을 다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데, 더구나 중근(中根)과 하근의 사람이야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내가 워낙 불민하여 학문하기 어려운 줄 알겠기에, **왕년에 道를 무겁게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국에 건너갔는데, 그 뜻이 어디 있었느냐면 바로 성인(석가모니)의 용심(用心)을 본받고자 함이었습니다.** …

그리고 비근한 일로 말한다면, **나의 뜻은 출가를 허락하신 선군의 은혜를 갚고, 불법을 외호해 주시는 전하의 뜻에 부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은덕에 보답하고, **중생의 잘못된 소견의 마음(衆生邪見之心)을 구제함으로써 法輪이 閻浮(閻浮: 人間세상)에 다시 구르고, 道光이 千歲(千載: 千歲)에 거듭 빛나게 하여 四愿이 마침내 … (결락) …**<sup>62)</sup>

위의 편지에서는, 의천의 나이 37세 무렵인 1091년 당시에 의천이 처하였던 상황 및 그의 시대정신에 관한 그의 마음 속 소회(所懷) 등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어사대의 상소문에 대한 건, ② 완성된 鎮兵大藏經을 보완하고 이어갈(補續) 수 있는 章疏들을 수집하여 教藏(續藏)을 간행하는 일, ③ ‘邪見之心의 중생을 救濟함으로써 부처의 광명이 千秋萬歲에 거듭 빛나게 한다’는 염원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의천은 제종교장을 완성·간행함으로써 正藏인 진병대장경을 보속함과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위 인용문의 편지에서는 ‘중생의 잘못된 소견의 마음을 구제함으로써 법륜이 인간세상(閻浮)에 다시 구르고 道光이 千歲에 거듭 빛나게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서술에서 그 나머지 편지가 결락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의천의 편지에서 결락된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서술하고 있을까?

필자의 소견으로는, 위와 같은 의천의 여러 시대정신을 종합한다면, 의천은

62) 義天, “與內侍文冠書,” 『大覺國師文集』 제13권,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267-270.

제종교장의 완성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완전한 불교의 가르침이 전과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대각국사문집』의 여러 내용들에서 의천의 시대정신을 관통하여 볼 때, 의천의 가슴 속 깊은 생각(思想)은 바로 ‘末法時代의 衆生救濟’에 관한 정신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대각국사문집』에서 ‘末法思想’<sup>63)</sup> 또는 ‘正·像·末 三時說’<sup>64)</sup>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여 보면,

돌아본건대, … 비록 經論(대장경)은 갖추어졌으나 疏鈔는 부족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고금에 걸쳐 遙나라와 宋나라에 있는 百家의 科教(章疏)를 一藏으로 모아 유통시킴으로써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여 샷된 그물의 매듭을 풀어 버리고, **상법(像法)을 다시 일으켜** 국가를 이롭게 함은 물론, 항사(恒沙)와 같은 세계의 群生 모두에게 金剛의 善한 씨앗을 뿌리고, 다함께 보현보살의 道를 배워 노사나불의 이상향에서 노닐게 하고자 합니다.<sup>65)</sup>

… 이에 스스로 무상함을 탄식하며 **末法을 붙들여 일으키려고** 밝은 스승을 찾아서 모진 마음으로 고국을 떠났던 것인데, 지금 광음이 머물지 않아 祥日이 마지막을 고하기에 …<sup>66)</sup>

吾祖가 일찍이 이르기를 “돌아보건대, 正法の 시대에도 맑은 빛이 숨겨져 있었는데, **像季<sup>67)</sup>의 시대에** 이와 같은 현묘한 교화를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였고, 심지어는 “지금 **塔寺의 末期에 처하여 투쟁의 시기가 임박한 이때**

- 63) 周知하는 바와 같이, 末法思想은 天台智顚의 스승이었던 惠思(515-577)가 撰述한 『立誓願文』에서 나타나는 사상으로, ‘正法 오백년, 像法 일천년, 末法 일 만년’의 三時說을 세워 서, 惠思 당시부터 말법시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 64) 『大方等大集經』 권55에 이른바 ‘오5백년설(五五百年說)’이 說破되는데, 佛陀 入滅後 2천5백년의 기간을 차례로 ①解脫堅固, ②禪定堅固, ③多聞堅固, ④造寺堅固, ⑤鬪爭堅固 등의 시기로 5백년씩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이 다섯 시기가 지나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어도 如法하게 행하지 않고 파계하는 法滅의 시대가 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清涼澄觀(738-839)의 『화엄경수소연의초』 권2에서는 이 ‘다섯 5백년설’을 각각 ‘正·像·末 三時’로 나누어, ‘앞의 두 5백년은 정법시대, 제3 및 제4의 5백년은 상법시대라 하고, 마지막 5백년은 말법시대 1만년의 처음 5백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65) 義天, “代世子集教藏發願疏,”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286.
- 66) 義天, “祭文王文[入大宋作],”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309.
- 67) 像季: ‘像法 시대의 말기’라는 의미. 의천은 위의 글에서 清涼澄觀의 시대(8세기 중·후기 및 9세기초)를 상법시대의 말기로 보고, 의천 자신의 시대는 말법시대라고 여기고 있다.

에 문득思量하기 어려운 經論을 듣게 되었으니, 몸이 가루가 되어도 이 은혜를 잊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가 하면, … / … 이! 祖師의 시대는 그래도 塔寺를 많이 세우는 佛法의 시대에 속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을 말하는 것이 이처럼 절실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濁世(五濁惡世)로서 바로 치열하게 투쟁하는 시대에 처했으니, 圓頓의 가르침을 얻어듣고서 어찌 감상에 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인의 시대와 점점 멀어지고, 계다가 변두리 지역이라서 세상에서 正道를 보기 어려우며, 학술도 사도를 따른 나머지 마침내 吾道가 거의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 68)

… 그런데 지금은 여래가 입멸한 뒤로 마지막 5백 년에 해당하여 佛法이 쇠퇴한 末世이고, 人心이 탁해진 亂世이기 때문에 대충 배우는 자는 많아도 절실한 뜻을 지닌 자는 적으며, 처음에 發心했다가도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자는 드물기만 하다. … 69)

末法시대에 教網이 무너짐을 그 누가 알까 / 구구하게도 모두 명성과 이욕에 쫓기는 걸 / 傳燈과 輔道가 진정 餘事가 되었나니 / ‘魏統이 수풀 같은데도 散在라서 부끄러워’<sup>70)71)</sup>

라 하였다. 위와 같이, 『대각국사문집』에서는 의천의 나이 19세 때 작성한 “代世子集教藏發願疏”에서부터 의천의 入宋求法 당시 및 의천의 생애 중에서 後期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詩에 이르기까지, 즉 末法時代에서도 章疏를 集大成하여 一藏으로 유통시켜 佛法을 弘布시킴으로써 末法을 붙들어 일으키고자 하는 이른바 ‘章疏에 의한 佛法의 弘布로 말법시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천의 시대 정신’이 그의 一生을 관통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3.5 고려 천태종 개창과 관련한 시대정신

의천은 1086년 4월에 중국 항주에서 귀국길에 오를 때, 특별히 천태산의 정상인

68) 義天, “示新參學徒緇秀,”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320-321.

69) 義天, “示新參學徒智雄,”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325-326.

70) 佛法의 正大한 계통이 너무도 많이 잘못 되어진 채 세상에 그대로 횡행하고 있는 데에도, 이를 바로잡기에는 의천의 역량이 부족해서 안타깝기만 하다는 뜻.

71) 義天, “因事偶言,” 『大覺國師集』 卷第17(詩),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325-326.

정광불룡(定光佛籠)에 올라, 智者大師(天台智顚)의 塔 앞에서 ‘고려에 天台宗을 開創’할 것을 發願하였다.<sup>72)</sup> 그리하여 의천의 나이 43세 때인 1097년(肅宗 2) 2월에 國淸寺<sup>73)</sup>가 落成되자, 의천은 5월에 이 절의 住持로 취임하면서 드디어 고려에 천태종을 開創하게 된다.<sup>74)</sup>

의천은 중국에서 귀국하기 직전까지, 천태사상에 관심을 표방하면서 비교적 많은 천태종의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천태종 정통 山家派의 從諫·元淨·中立·法隣을 직접 만나 교학을 교류하였다. 中立과 法隣은 천태종 산가과 神智鑑文의 法嗣로 廣智의 3세와 4세가 된다. 의천은 從諫에게서 천태교관을 稟受하고, 귀국 후 천태교학을 크게 일으키고자 천태종 本寺인 ‘國淸寺’<sup>75)</sup>를 창건하고, 거기에 종간의 저술을 받들어 모시는 한편 종간의 像을 세워 천태종의 初祖로 삼았다. 의천은 귀국 후에도 從諫과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중국 천태종 從諫을 정통으로 계승하였음을 강조하였다.<sup>76)</sup> 1097년(肅宗 2) 2월에 낙성된 고려 천태종 國淸寺에 의천은 그해 5월에 주지(住持)로 취임하였다. 그리하여 의천은 “新創國淸寺啓講辭”(1097)에서,

… 돌이켜 보건대, 海東의 佛法이 7백여 년에 이르는 동안 비록 諸宗이 競演을 하고 衆教가 성황을 이루었지만, 천태 하나의 支派만은 어느 시대에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元曉 보살이 앞에서 찬미하였고, 戒觀(諱觀)법사가 뒤에서 신앙했습니다만, 機緣이 익지 않아서 밝게 드러낼 길이 없는 데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 貧道는 그리고 몸을 버려 진리를 묻고 목숨을 던져 스승을 찾고자 萬頃蒼波를 건너 善知識을 두루 參禮할 적에 國淸[寺]과 天竺<sup>77)</sup>에

72) 義天, “大宋天台塔下親發願疏,” 『大覺國師文集』, 第14卷,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279.

73) 고려 天台宗의 本寺.

74) 위와 같은 의천의 고려 천태종 개창의 염원은 일찍이 ‘肅宗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아마도 이 시기는, 1083년 文宗의 崩御 이후부터 대각국사가 入宋하던 1085년(宣宗 2) 이전, 그 사이의 시기로 추정된다.)’부터 거론이 되었던 문제로, “천태종의 三觀은 最上の 眞乘인데, 이 땅에는 그 宗門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애석한 일하기에 臣이 나름대로 여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林存, “仙鳳寺大覺國師碑文,”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718.)”라 하였다.

75) 고려 국청사는 1089년(宣宗 6)에, 의천의 母后인 인예태후의 원찰(願刹)로 착공하였으며, 開京의 서쪽에 있다. 착공부터 낙성까지는 무려 8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76)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69.

서 教觀을承稟하고, 佛隴<sup>78)</sup>과 孤山<sup>79)</sup>에서 [天台大師] 塔廟를 예배하며, 목숨을 다해 [天台宗을 高麗에] 傳燈할 것을 誠心으로 다짐하였는데, 지금 평생의 소원을 거의 이루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생각을 다해 돌아갈 곳이 있고, 몸을 버려 죽을 곳을 얻었다”라고 하였고, “비록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시 태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너무도 기쁜 나머지 춤이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慶賀하는지는 오직 聖賢만이 나의 심정을 알아주실 것입니다.<sup>80)</sup>

라 하였다. 『대각국사문집』을 통틀어 보아도, 의천은 ‘평생의 소원을 거의 이루었다’·‘너무도 기쁜 나머지 춤이 저절로 나온다’·‘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경하하는지 오직 성현만이 나의 심정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記述한 사례는 오로지 위의 인용문에서만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의천에게는, 삼국시대 元曉(617-686)에 의하여 ‘法華經宗要』1卷’ 등<sup>81)</sup>이 저술되었고天台敎學 또한 삼국시대부터 전래되어 있었으나, 고려 당시까지 천태종이 독립된 하나의 종파불교로 성립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고려에 천태종을 개창하고자 하는 의천의 시대정신은 실로 막중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의천은 천태종을 개창함으로써 고려불교의 완전한 구색(具色)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불교의 完成을 追求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의천의 천태종 개창은 ‘교관겸수(教觀兼修: 教觀竝修)의 사상’<sup>82)</sup>에 입각하여 한국불교

77) 중국 浙江 抗縣의 天竺寺를 지칭함.

78) 天台智者의 塔이 있는 천태산 정상을 일컬음.

79) 중국 浙江 杭州 西湖의 서북쪽 모퉁이의 섬 안에 있음.

80) 義天, “新創國淸寺啓講辭,” 『大覺國師文集』, 第3卷,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80.

81) 원효의 법화경 관련 연구는 『法華經宗要』 1권(存), 『法華經方便品料簡』 1권(失), 『法華經要略』 1권(失), 『法華略述』 1권(失) 등으로 매우 활발한 상황이었다.

82) 教觀兼修: 고려시대의 禪宗은 太祖의 옹호를 받아 그 세력을 떨쳤으나, 顯宗 이후에는 華嚴宗·法相宗 등의 교종이 세력을 얻어 선종에 대항하였으며, 서로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타종을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의천은 元曉의 和諍思想과 송나라 고승 淨源과 澄觀의 天台止觀) 영향을 받아 학문에 있어서의 편견을 경계하고 종파의 대립을 개탄하였다. 『法華經』의 會三歸一을 국가의 통화와 민족적 이념에 합치시켰으며, 이론적으로는 화엄종의 一乘과 천태종의 일승이 우주와 개인, 전체와 개체를 따로 보지 않는 점에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여기에 禪思想까지를 귀납시켜 종합적인 일승을 제창하고 교관겸수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이때 의천은 천태와 화엄의 兩宗을 통한 종합적인 佛敎觀을 세워

의 전통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83)</sup> 결국 의천은, 그의 형인 肅宗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인 1097년(肅宗 2)에 드디어 고려 天台宗을 開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4)</sup>

요컨대, 1084년부터 1101년 入寂 직전까지 고려 천태종의 개창에 관한 의천의 시대정신은 드디어 ‘교관겸수(教觀兼修)의 사상’을 주창(主唱)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고려 종파불교의 완성을 추구한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教와 觀을 함께 닦는 것이 불교수행의 바른 길이라고 하였다. 教만 닦고 禪을 없애거나, 禪만 주장하고 教를 버리는 것은 완전한 불교가 못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禪宗과 教宗이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는 폐단을 타파하고, 모든 종파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담은 것이 教觀兼修思想이다. 그 뒤 교관겸수사상은 고려천태종을 중심으로 실천되었으며, 知訥의 ‘定慧雙修’와 함께 우리나라 불교의 뚜렷한 전통이 되어 전승되었다.

83) 의천이 ‘教觀兼修’에 대하여 직접 논술한 부분은 “示新參學徒緇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 다행히도 宿世의 인연 덕분에 선지식을 두루 참알하다가 沓水 대법사 講下에서 教觀을 전수받게 되었다. / 그런데 언젠가 講學을 하시던 여가에 일러주시기를, ‘觀을 배우지 않고 오직 經[教]만 전수하면 五周因果(80권 『화엄경』에 제시되는 5개의 因果에 대한 진실)를 듣더라도 三重性德(삼重的 門을 설치한 性德)에 통달하지 못할 것이요, 經[教]을 전수하지 않고 오직 觀만 배우면 비록 삼중성덕을 깨닫더라도 오주인과를 분별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다면 觀도 배우지 않으면 안되고 經[教]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내가 教觀에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淸涼이 ‘마음을 龜鏡으로 삼지 않으면 성령을 헛되이 저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니, 이 말은 ‘大經[華嚴經],을 전수하더라도 觀門을 배우지 않은 자라면 비록 講主라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한 뜻을 알 수 있다(義天, “示新參學徒緇秀,” 『대각국사집』, 322.)”라 하여, 教觀兼修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84) 의천의 천태종 개창은 당시 고려 불교계의 재편을 통한, 이른바 禪宗 산문의 문도를 중심으로 개창하였다. 즉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할 당시, 선종 산문의 10명 중 6·7명이 천태종으로 옮겼다. 또한 의천은 1100년(肅宗 5)에 국정사에서 天台智顚의 『法華玄義』 10권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강의하고 뜻을 기술하여 학도들을 교육하고, 그 이듬해인 1101년 2월에는 天台宗 僧科 大選을 실시하여 40명을 선발하였다(박용진, 『義天 - 그의 생애와 사상 -』 (서울: 혜안, 2011), 89). 이와 같이, 고려에 천태종을 개창하고자 하였던 의천의 시대정신은, 1084년경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入宋 중에 중국 천태종의 從諫으로부터 天台教法을 傳受받고, 1085년에 천태산 불롱봉 지자대사탑 앞에서 고려에 천태종을 개창할 것을 發願하였고, 1097년에는 드디어 천태종을 개창하였으며, 1101년에는 ‘天台宗 僧科 大選’에서 천태종의 승려 40명을 선발함으로써 천태종의 개창 서원을 매듭짓고 있다.

#### 4.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新編諸宗教藏總錄』에 編入된 法華·天台 章疏의 특징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 1) 『교장총록』 法華經 관련 장소의 목록에서는, ① 天台3大部를 비롯한 智者大師의 章疏를 비롯하여 천태종의 所依經典인 『법화경』 관련 중국 章疏들을 通時的으로 총망라함으로써, 고려 천태종 開創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② 元曉를 비롯한 新羅 學問僧 들의 章疏와 거란(契丹)의 법화경연구서까지 集大成하였으며, ③ 의천의 入宋求法 당시에 중국 천태종 승려들과 교류하였을 때, 당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법화경 연구 章疏들도 모두 빠짐없이 수록되고 있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 2) 『교장총록』 법화·천태 장소 목록의 記述(記入)事項에 관한 분석적 특징은, 첫째로 書名記述에서 表目과 중복되는 제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고, 둘째로 著者名記述에서 저자의 法名만을 채록하거나, 셋째로 각 章疏에서 著者名 및 그밖에 관련이 있는 기타 人名과를 엄격하게 區別하는 방식 등은, ‘와이너(B. S. Wyner)가 제시한 목록의 조건에서 ① 논리성, ② 유연성, ③ 신속성, ④ 간결성, ⑤ 경제성의 조건’도 모두 충분하게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장총록』 著錄의 탁월성(卓越性)을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었다.
- 3) 『교장총록』 권제3 後尾 부분의 ‘天台 관련 목록’에서 認知할 수 있는 최대의 특징은, 의천은 『교장총록』의 후미에 불교의 실천수행법인 觀心門을 밝힌 『摩訶止觀』 10卷을 비롯하여 ‘諸宗止觀·小止觀·觀心論·禪波羅蜜’ 등과 戒觀(諦觀)의 『天台四教儀』 등天台 관련 章疏 34部 130여 권을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高麗에天台宗을 開創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완벽하게 구축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었다.

둘째, 제3장에서는 世界最初の 章疏目錄인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하고,

續藏인 諸宗教藏을 결집하였으며, 고려에 天台宗을 開創하게 한 ‘의천의 시대정신’에 관하여 時期別로 보다 구체적으로 考究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 1) 의천은 고려에서 鎮兵大藏經(初雕大藏經)이 완성되어가는 時點인 1073년 경인 19세 당시에 發願된 의천의 시대정신은, 동아시아 漢字文化圈 국가에서 저술된 대장경 전체에 관한 연구서인 모든 章疏들을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章疏를 一藏으로 결집하여 이른바 ‘第四藏’이라 할 수 있는 諸宗教藏(續藏)을 유통시켜 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계승(補續)함으로써, 末法時代에서도 佛法을 다시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發願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19세 당시 의천의 시대정신은 그의 평생을 초지일관하며 그 誓願을 성취할 수 있었던 原動力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2) 1085년 5월부터 그 이듬해인 1086년 5월까지 의천의 시대정신은, 송나라를 周遊하는 동안 중국의 많은 學問僧 등과 교류하면서 중국불교 연구의 현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大藏經을 補續할 수 있는 모든 章疏의 수집에 모든 정열을 쏟아 붓게 하였고, 귀국할 당시 의천의 시대정신은 고려에 천태종을 개창하겠다는 염원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3)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 및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당시인 1090년경 의천의 시대정신은, ‘章疏의 수집을 통한 제종교장의 간행’, 즉 大藏經 三藏에 ‘章疏의 結集을 통한 諸宗教藏이라는 第四藏을 추가함’으로써, ‘완전한 4藏으로 구성된 대장경’을 後世에 전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4) “與內侍文冠書”를 쓸 당시인 1091년경의 의천의 시대정신은 이른바 ‘章疏에 의한 佛法의 弘布로 말법시대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함’에 있었다.
- 5) 1084년부터 1101년 入寂 직전까지 고려 천태종의 개창과 관련한 의천의 시대정신은 드디어 ‘교관겸수(教觀兼修)의 사상’을 주창(主唱)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고려 종파불교의 완성을 추구한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卷第10, 世家 卷第10. / 卷第129. 列傳 第42, 최충헌條.
- 「高麗史節要」卷5, 宣宗 2年 4月條.
- 金富軾. [“靈通寺大覺國師碑文.”] 「大覺國師外集」第12卷.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688-710.
-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第15卷.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300-301.
- 義天. “代世子集教藏發願疏.” 「大覺國師文集」第14卷. 『대각국사집』. 285-286.
- 義天. “大宋天台塔下親叅發願疏.” 「大覺國師文集」第14卷. 『대각국사집』. 279.
- 義天. “示新參學徒智雄.” 「大覺國師文集」第16卷. 『대각국사집』. 325-327.
- 義天. “示新參學徒緇秀.” 「大覺國師文集」第16卷. 『대각국사집』. 319-324.
- 義天. “新創國淸寺啓講辭.” 「大覺國師文集」第3卷. 『대각국사집』. 79-81.
-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大覺國師文集」第1卷. 『대각국사집』. 62-63.
- 義天. “與內侍文冠書.” 「大覺國師文集」第13卷. 『대각국사집』. 267.
- 義天. “因事偶言.” 「大覺國師集」卷第17(詩). 『대각국사집』. 325-326.
- 義天. “祭文王文[入大宋作].” 「大覺國師文集」第13卷. 『대각국사집』. 309.
- 林存. “南崇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序.” 「大覺國師外集」第13卷. 『대각국사집』. 716-729.
-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第26輯(1997. 여름호). 1-22.
-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8-80.
- 金聖洙. “教藏總錄 經部 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第10輯(1983). 121-148.
-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 김성수. “의천, 세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8輯(2014. 6). 55-89.

김태수.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제12권 제2호(1995. 12). 9-35.

김태수. 『목록학개론』. 서울: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6.

다무라 시로 外/ 이영자 옮김. 『천태법화의 사상』. 서울: 민족사, 1994.

大屋徳城. 『高麗續藏彫造考』. 京都: 便利堂, 昭和12[1937].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해안, 2011.

서진수, 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이병욱 편저. 『의천』. 서울: 예문서원, 2002.

오윤희. 『일꾼 의천』. 서울: 불광출판사, 2012.

의천/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이병욱. 『천태사상』. 서울: 태학사, 2005.

이영자. 『법화·천태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천태지자대사 저, 윤현로 역주. 『천태소지관』. 서울: 운주사, 2011.

최병헌. “대각국사집 해제.”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7-41.

최종남. 『역경학개론 수업자료집』.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15.

키무라 키요다카/ 장휘옥 옮김. 『중국불교사상사』. 서울: 민족사, 1995.

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